

# 리스본엑스포를 통해 본 여수엑스포의 주제와 도시개발

최은순\* · 정문수†

\*,† 한국해양대학교 유럽학과 교수

## The theme and urban development of the Expo Yeosu focusing on the case of the Expo Lisbon

Eun-Soon Choi\* · Moon-Soo Jeong†

\*,† Dept. of European Studies, Korea Maritime University, Busan 606-791, Korea

**요 약** : 이 논문의 목적은 21세기 BIE엑스포에서 주제와 메시지의 중요성과 역할이 무엇인지 규명하고, 주제와 도시개발에 초점을 두고 있는 2012년 여수엑스포 계획에 유용한 제언을 제공하는 것이다. 1998년 리스본엑스포를 전환점으로, 엑스포의 주제와 메시지는 과학기술의 성과를 강조하는 것보다는 진보에 대한 반성과 지구의 미래를 강조한다. 이러한 변화는 오늘날 인류 사회가 당면한 전지구적 환경문제의 해법 모색과 지속가능한 개발을 보장하는 신기술에 대한 관심을 반영한다. 바다와 연안에 대한 신기술과 신사상을 경연하는 여수엑스포는 비슷한 주제의 리스본엑스포의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동시에 이와 차별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 논문은 여수엑스포의 주제와 도시개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첫째 해양과 관련된 신기술의 강조와 더불어 그것의 개도국 보급을 위한 여수프로젝트 비전의 강화. 둘째 리스본의 수도재개발과 다른 도시개발전략 즉, 남해안시대와 연계된 해항도시네트워크 구상.

**핵심용어** : 리스본엑스포, 여수엑스포, 주제엑스포, 지속가능한 개발, 도시개발, 해양

**Abstract** : This work aims to highlight the importance and role of the theme and message of BIE exhibitions in the 21th century, and to suggest essential points concerning the preparation of the Expo 2012 Yeosu which would focus on the theme and urban development. After the Expo '98 Lisbon, the theme and message of Expo has been changed from focusing on the progress of technology itself to rethinking of progress itself and focusing on the future of the globe. This change also reflects the need to solve the problems of global environment problem in today's human society and to pursue the new technology which enable to make sure sustainable development. Because the Expo Yeosu, whose theme is the sea and coast, is compared to case of Expo Lisbon whose theme is ocean, we need to make a benchmarking the case of the Expo Lisbon and to make efforts to differentiate the case of the Expo Lisbon. This article suggests concerning the theme and urban development plan of the Expo Yeosu as follows: First, to propose current and future cutting edge technology to utilize the resources of the ocean and the coast and to propose the Yeosu Project, a capacity-building program designed to address various challenges confronting developing countries. Second, to propose a different urban redevelopment plan of capital Lisbon, ie to propose sea port cities network to link the advent of the Namhaeansidae.

**Key words** : Expo Lisbon, Expo Yeosu, thematic exhibitions, sustainable development, urban development, oceans

### 1. 서 론

2012년 여수엑스포를 앞두고 엑스포 행사 자체와 그 이후 도시개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은 리스본'을 벤치마킹해야 한다는 기사들이 자주 눈에 띈다. 그러나 기사들의 대부분이 직접적인 물질적 경제 효과에 대한 성공 사례로 리스본엑스포를 이야기할 뿐, 이 엑스포의 진정한 성공 요인에 대한 경제외적 효과는 간과하고 있다. 물론 경제적 효과는 정확한 수치를 통해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지만, 경제외적 요소는 잠재적인 장기적 효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측하기 때문에 배제하는 경우가 많다.

해양이라는 주제와 도시개발이라는 측면에서 리스본엑스포는 의미 있는 벤치마킹의 사례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여수엑스포

의 목표 또한 이 두 가지 측면에서 구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는 주제와 관련하여 오늘날 환경문제 중 현안이 되고 있는 해양오염, 무분별한 연안개발, 환경에 반한 개발 등의 문제를 보여줌으로써 해양의 중요성과 그 역할을 강조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엑스포 자체의 행사유치를 통한 경제적 경제외적 효과를 통해 여수가 아시아권 해양도시의 메카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여수시와 여수엑스포조직위는 국토균형개발이라는 틀 안에서 접근성이 낮은 여수에 교통인프라를 재정비하고 지속적인 관광요인을 만들기 위해 관광시설 및 배후지역의 관광지를 개발하여 남해안지역 전체를 아우르는 지역관광개발을 구상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는 1998년 <해양, 미래를 위한 유산>이라는 주제

\* 대표저자 : 최은순(정회원) eschoi@hhu.ac.kr 051)410-4853

† 교신저자 : 정문수(정회원) jms@hhu.ac.kr 051)410-4851

로 환경문제를 다루고, 유례없는 도시개발계획을 병행한 리스본엑스포의 목표와 일치한다. 더욱이 두 엑스포 모두 인정박람회라는 점에서 행사성격이나 운영내용이 많이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리스본엑스포의 성공 사례 이후 해양이라는 주제를 환경이라는 동일한 틀에서 다룬다고 할 때 여수엑스포는 이 선례와 차별화하는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수는 세계 도시의 위상과 인지도가 있는 포르투갈의 리스본이 아니다. 더욱이 아직까지 이렇다 할 문화적 상징이 없는 도시, 경제적으로 취약한 한 지방도시의 이미지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두 도시의 도시적 여건이 다르다는 전제 하에 사후활용과 도시개발이라는 타이틀의 표면적인 벤치마킹이 아니라 각 도시의 역사적 문화적 시대적 상징적 의미를 고려해야 한다.

이렇게 보면, 리스본엑스포는 우리에게 도전이며, 긍정적인 모델인 동시에 부정적인 모델이 될 수 있다. 리스본엑스포는 20세기 마지막 엑스포라는 세기적 의미가 있으며, 21세기를 시작하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여기서 가교 역할이라 말할 수 있는 이유는 20세기의 전형적인 엑스포의 흐름 안에 들어가지만 21세기 엑스포의 방향을 이미 실험하고 제안하였다는 데 있다. 그런 점에서 2012년 여수엑스포는 리스본엑스포의 지향점이 무엇이었는지, 21세기의 관점에서 해양의 위기와 그 문제를 어떻게 고발하였는지, 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안들이 어떻게 구현되었는지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리스본엑스포가 환경엑스포의 틀 안에서 해양 주제를 어떻게 다루었는지, 또 포르투갈과 리스본에 있어 도시개발의 시대적 요구와 의미가 무엇인지를 보여줌으로써 리스본 엑스포의 진정한 성공의 열쇠가 무엇이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주제적 통일성과 도시개발의 측면에서 2012년 개최될 여수엑스포가 리스본엑스포의 경우와 차별화되어야 하는 요소를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 2. 21세기 엑스포의 새로운 경향 : 주제엑스포

세계박람회사무국(이하 BIE)의 최근 웹 사이트에서 주목되는 변화는 바로 <주제가 엑스포를 만든다>라는 코너이다. BIE의 뉴스레터 Progression에 실린 <주제, 성공의 원천>, <주제는 엑스포의 불꽃이다>, <주제는 역사를 만든다>와 같은 기사제목들은 오늘날 엑스포의 성공의 답이 어디에 있는가를 잘 예시한다. 우리시대는 이전처럼 단순히 과학기술적 발전과 성과가

아니라 그 발전과 성과에 대한 반성과 오늘날의 위기와 그 문제들을 찾아내어 공유하고 실천적 차원의 해결책을 제시하는 엑스포가 되길 요구하고 있다.

근대 박람회의 시작을 알린 1851년 런던엑스포에서 오늘날까지 엑스포의 역사는 21세기 엑스포가 무엇을 펼쳐 보여주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그것은 바로 주제인 것이다. 엑스포는 이제 과학기술의 물질문명의 발전 그 자체에 대한 반성과 그 성과물에 반동하여 나타난 인간성 상실, 자연파괴, 사회적 소외 등과 같은 세계 곳곳의 국가, 지방, 도시, 시민들의 문제들을 공론화하고 해결을 모색하는 세계적 만남의 장으로서 의미를 갖는다.

흔히 우리 표현에 박람회(博覽會)는 말 그대로 ‘많은 것을 모아 펼쳐 보이는 장’이라는 뜻이다. 박람회는 표현은 언어에 따라 Fair(영), Exhibition(영), Exposition(영, 프) 등으로 표기된다. 여기에 세계 혹은 국제라는 수식어를 붙일 경우, 외국어로는 World(영), International(영, 프), Mondial(프)의 지리적 의미가 추가된다. 즉, 세계 여러 국가들이 참여하는 국제적 행사를 의미한다. 우리말로는 세계박람회, 국제박람회, 한국박람회, 엑스포 등 다양하게 사용된다.<sup>1)</sup> 이 정의에서 ‘많은 것’은 지시대상이 모호하지만 ‘펼쳐 보여 지는 대상’을 말한다. 사전에서 박람회는 “산업이나 기술 따위의 발전을 위하여 농업, 공업, 상업 등에 관한 물품을 모아, 일정한 기간 동안 여러 사람에게 보이는 모임”(두산동아)으로 정의된다. 이 정의에서 보면 전시 대상은 ‘농업, 공업, 상업 등에 관한 물품’이다. 그런데 158년 동안 엑스포는 지속적으로 발전해 왔고, 오랜 발전의 역사만큼 ‘펼쳐 보여지는 대상’ 또한 변하였다. 초기 엑스포들은 당대 과학기술의 진보와 성과를 위한 장이었다. 엑스포는 기본적으로 새로운 과학기술에 토대한 물질문명과 관련되는 요소들(전화, 텔레비전, 전기 등등)을 주로 전시하여 새로운 정보를 전달하고 성과물을 대중화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점점 미디어와 인터넷이 발달하고 첨단 과학기술을 테크노파크나 전문박람회 등에서 일상적으로 접하면서, 새로운 정보전달의 역할은 그 의미를 많이 상실하였다. 오늘날 과학기술의 참신성과 독창성, 순수히 산업적 성과만을 강조하는 엑스포는 성공의 열쇠를 쥐고 있지 않다. 엑스포는 더 이상 ‘최초의 무엇’(박 2008 : 126)이 제시되는 공간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오늘날 엑스포의 의미 혹은 유용성은 무엇인가? 이는 만남의 기능과 당대의 보편적 주제들에 대한 반성이라는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19세기 초기 엑스포 기간

1) 흔히 엑스포(Expo)sition라 불리지만, 영어권 국가에서는 World's Fair, International Exhibition, International Exposition, 프랑스어로는 Exposition Mondiale, Exposition Internationale로 사용된다. 미국의 경우 Exhibition, Fair, Exposition이 구별 없이 혼용해서 사용된다. 반면 영국과 프랑스에서 Fair(프랑스어로는 Foire)는 상업적 목적으로 상품을 전시하는 지방시의 의미로 사용하고, 영국은 국제적 박람회를 위해서 Exhibition, 프랑스에서는 Exposition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따라서 영국에서 World's Fair은 International Exhibition을 의미한다. 프랑스어에서는 Exposition Universelle와 Exposition Internationale(혹은 Mondiale)이 구분되어 사용된다. 전자는 1988년 수정된 BIE의 엑스포 협약에서 등록박람회Exposition Enregistrée에 해당하며, 인간 활동의 전 분야를 전시하고, 6개월이라는 행사기간 동안 참가국이 직접 국가관을 건설할 경우에 해당한다. 후자의 경우는 인정박람회Exposition Reconnuée에 해당하는데, 세계 많은 국가들이 참가하고 국가관의 건축은 주최국이 맡고 그 내부는 참가국이 건설하는 경우를 말한다. 1988년 수정된 협약에서는 더 이상 Exposition Universelle를 사용하지 않고, 위에서 언급한 등록박람회와 인정박람회로 구분할 뿐이다. 2000년 하노버엑스포 이후로는 Expo Hanovre 2000, Expo Shanghai 2010, Expo Yeosu 2012 등으로 공식명칭이 Expo로 통일되어 사용되고 있다. 송(1990 : 8), Pinot de Villechenon(1992 : 22, 23, 74), <http://www.bie-paris.org> 참조.

동안 미술과 음악을 포함하는 문화적 요소가 중요했지만 과학 기술에 동반되어 교육의 유효적 측면이 더욱 부각되었던 것 같다. 특히 1893년 시카고엑스포에서 처음으로 놀이공원을 건설하면서 엑스포의 오락적 축제의 경향이 강조되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탈식민주의가 발달하였고, 신생독립국들이 참여함으로써 참가국의 수가 증가하였다. 신생국들에게 있어 자국문화의 소개는 국가정체성의 표현이 되었고 더 나아가 ‘인간’에 관심을 집중하면서 엑스포는 문화다양성의 창으로서의 의미가 있었다(Progression, 2009, n<sup>o</sup> 12).

2차 세계대전 이후 엑스포의 주제가 인류 발전의 성과 자체에서 ‘인간’으로 변하는 전환점은 1958년 <보다 인간적인 세계를 위하여>를 주제로 한 브뤼셀엑스포였다. 브뤼셀엑스포는 엑스포의 주제를 예시하기 위해 처음으로 주제관을 만들었다(Pinot de Villechenon 1992 : 95). 이 엑스포는 지적 윤리적 목적을 강조하면서 엑스포 주제와 전시관의 내용이 가능한 한 일치할 수 있도록 행사의 지침을 제공하였다. 이후 <사람과 사람이 살아가는 땅>(1967, 몬트리올), <인류 공생을 위한 진보와 조화>(1970, 오사카), <발견의 시대>(1992, 세비아) 등 일련의 엑스포들도, 주제와 전시내용 간의 연관성을 부여하고자 하였다.

1970년대 이후 자본주의 발전에 따른 부작용을 반성하는 히피문화나 프랑스 68혁명과 같은 문화현상과 함께 생태-환경에 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엑스포 또한 이러한 사회적 관심을 표출하지 않을 수 없었다(송과 심, 2005 : 418). 엑스포는 그것이 등로박람회이든 인정박람회이든 간에 ‘환경’이라는 문제를 부분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다루기 시작하였고, 1990년대 이후 각 국가의 과학과 기술의 진보를 위한 공헌과 신기술의 소개보다는 인류공동의 미래건설이라는 보편적인 목표를 추구하였다. 특히 1992년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환경과 개발에 관한 유엔회의’에서 채택한 <리우선언> 이후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환경지침이 건축에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1992년 세비아의 경우, 환경개발과 관련한 직접적인 건축 지침이나 구체적인 건축물은 없었지만 일부 건축가들의 생태 건축적 시도가 이루어졌다. 반면 1993년 대전엑스포는 <자연의 효율적인 이용과 재활용>이라는 부주제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생태적 고려 사항은 없었다.

이후 환경주제를 전면으로 내세운 최초의 엑스포라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1998년 <해양, 미래를 위한 유산>이라는 주제의 리스본엑스포였다. 물론 건축이나 행사 운영에서 특별한 생태-환경적 고려는 없었지만 21세기 국제정치 아젠다의 키워드인 인간과 환경간의 새로운 윤리적용을 제안하였다는 점에서 시대적 의미가 있었다.<sup>2)</sup>

새천년의 시작을 알리는 2000년 하노버엑스포부터 2005년 아이치엑스포, 2008년 사라고사엑스포, 2010년 상하이엑스포, 2012년 여수엑스포, 2015년 밀라노엑스포 모두 ‘환경엑스포’, ‘친환경 엑스포’ ‘지속가능한 엑스포’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된다. 이들 엑스포가 환경엑스포로 불리는 것은 - 리스본엑스포에서도 몇 가지 특징이 보이는데 - 20세기의 엑스포와는 다른 새로운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즉 엑스포가 단순히 세계적 만남의 역할이 아니라, 토론의 장이 되어 현안을 다루고 문제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과 지속가능한 활동으로 이어지는 계기를 만들기 때문이다.

<인류, 자연, 기술>이라는 주제의 하노버엑스포는 임시건물을 사후 재활용이 가능한 방식으로 건설하고 전시관이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주제를 다루도록 지침을 제시하였으며(송·심, 2005 : 420), <리우선언>에 대한 세부실천 계획인 『아젠다 21』을 2000년의 기획출판물로 채택하였다. 2005년 아이치엑스포는 <자연의 예지>라는 주제로 1994년 세계박람회사무국 총회의 결의안의 지속가능성 개념을 최초로 적용한 지침을 마련하고, 최초로 자원봉사자, NGO와 같은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하여 지구적 과제에 동참한다는 연대감을 만들어주고 일반대중에게도 연대의 중요성을 각인시켰다. 또한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규약인 <교토의정서>(2005.2.16)의 발효는 주제의 실천적 구현의 사례였다.<sup>3)</sup> 이와 같은 맥락에서 2008년에 개최된 스페인 사라고사엑스포는 주제적인 엑스포의 새로운 형식과 방향을 제시한 21세기 엑스포에 가장 적절한 모범 사례로 언급된다. 즉 세계 아젠다에 일치하는 주제의 선정과 내용, 성공적인 자원봉사프로그램 운영, 비정부기관의 직접적인 참여(전시관 및 활동 프로그램)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물 문화를 홍보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게다가 각종 국제회의, 정치, 사회, 경제적 주제의 포럼 개최, 지속가능한 개발 선언인 <사라고사선언> 공포 등의 활동은 새로운 물 문화를 이끌어가는 상징적, 국제적 지표가 되고자 하는 사라고사의 의지를 보여주었다.<sup>4)</sup>

2010년 상하이엑스포는 전 세계 도시들에게 지속가능한 개발의 비전을 제시하고자 하며, 2012년 여수엑스포 또한 <바다와 연안>의 중요성과 그 역할을 강조하고 <여수선언>과 <여수프로젝트>와 같은 실천적 방안들을 계획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개발의 비전을 보여줄 것이다.

2000년 하노버엑스포를 시작으로 일련의 엑스포들의 주제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발전이며 여기에 환경과의 조화를 피하고 있다. 엑스포는 이러한 주제들의 공론의 장이자 실천적인 방법을 모색케 하는 세계적 만남의 공간이 되었다.

2) 21세기 엑스포의 방향적 지침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는 1994년 BIE 총회의 결의안은 리스본의 주제의 시대적 적절성을 잘 대변하고 있는 것 같다. “엑스포는 자연 및 환경에 대한 존중이 인류에게 있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반영시킬 필요가 있다” 마찬가지로 21세기의 엑스포에 대해 “현대사회의 현실적인 테마를 지향할 것 또한 테마가 과학적, 기술적 및 경제적 진보의 현상과 인간적, 사회적 요구 및 자연환경보호의 필요성으로부터 여러 가지 문제를 부각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아이치엑스포 뉴스레터, 2005, n<sup>o</sup> 26).

3) 아이치엑스포 뉴스레터(2005, n<sup>o</sup> 26), Progression(2006, n<sup>o</sup> 3).

4) Poulain(2007 : 1), Progression(2008, n<sup>o</sup> 10).

이와 같이 엑스포는 본질적으로 문화다양성의 표현의 장이자 모든 문화가 교섭되는 공간으로서 21세기에 그 의미를 더하고 있다.

### 3. 20세기 최초이자 마지막 주제엑스포의 모델 : 리스본엑스포

#### 3.1 주제의 보편성 : 해양

포르투갈의 작가이자 철학자인 안토니우 메가 페레이라 António Mega Ferreira(리스본엑스포의 사무총장)는 ‘어떻게 하면 20세기의 유산 혹은 모랄이 발전보다 더 비중 있는 인류의 유산이 되도록 할 수 있을까’(GEO, 1998 : 112)라는 고민을 갖고, 리스본엑스포를 과학기술의 성과와 인류발전 자체보다 그 발전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엑스포로 만들고자 하였다. 그 방법은 인간과 자연환경과의 상호의존을 강조하고 인류의 발전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보편성이었다. 포르투갈은 해양에서 보편성을 찾았다. 포르투갈적인 동시에 보편적인 주제는 바로 ‘해양’이었던 것이다. 1992년 그는 수도 리스본이 <해양, 미래를 위한 유산>이라는 주제로 엑스포를 유치할 수 있도록 청원하였다(Luiz da Costa Dias, 1998 : 30).

해양이라는 주제는 포르투갈인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 15세기 포르투갈의 대항해 탐험가 바스코 다가마가 인도 직항로를 개척하여 처음으로 유럽과 인도를 연결하고 인류사에 근대의 문을 열어주었던 것은 바로 바닷길을 통해서였다. 이 바닷길은 식민지 교역의 중심지인 리스본으로 집중되었고 리스본의 번영으로 인해 포르투갈은 세계를 호령하는 해상제국이 되었다. 포르투갈은 해양을 통해 해상제국이 되었고, 수도 리스본은 유럽의 관문으로서 세계도시가 되었던 것이다. 산업화 과정 속에서 유럽의 가난한 나라로 전락한 포르투갈에게는, 또 공업이 쇠퇴하자 정유공장, 쓰레기하치장으로 황폐화된 리스본 항구에는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었다.

리스본 시는 1998년 132일간(5월 22일-9월30일) 20세기의 마지막 엑스포를 개최하는 도시가 되었다. 특히 해양을 하나의 발견 그리고 인류의 생존에 필수적인 자연의 보고로서 인식하고, 친환경적인 신기술을 통하여 환경문제를 극복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목표를 두었다.

1498년 5월 22일 바스코 다가마의 인도항로 발견일과 1998년 5월 22일 리스본엑스포 개막일 간의 500년의 거리를 ‘해양’이라는 주제로 연결하고자 하였다. 15세기 포르투갈이 인류사에 근대의 문을 열어주었듯이, 오늘날 해양과 그 자원의 보존이라는 메시지의 전령사가 되어 다시 한 번 역사적 기여를 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주제의 초점은 세계사의 대사건으로서 인도항로의 발견을 기념하기보다는 미래 자원으로서 보전해야 하는 해양의 보편성을 강조하는 데 있었다.

인류 공동의 관심사인 해양의 환경보존이라는 주제는 많은 국제기구들의 주목을 끌었다. 특히 유엔, 유네스코, 국제환경단체들은 리스본엑스포를 문화교류와 문화다양성이라는 세계적인 만남의 장으로 인식하고 전시 참여와 해양 주제의 구현에 동참하였다. 유엔은 1998년을 ‘세계해양의 해’로 지정함으로써 리스본엑스포의 주제적 중요성을 한층 더 부각시켜 주었다. 유네스코 사무총장 페데리코 메이어는 9월 25일 <평화문화를 위한 찬양>이라는 주제로 열린 리스본엑스포의 ‘유네스코의 날’ 행사에서 정부간 해양위원회의 활동 강화와 이 업무를 전담할 사무국을 리스본에 설립한다고 선언하였다.<sup>5)</sup> 유럽 각료이사회는 해양이라는 주제가 리스본엑스포를 문화다양성 교류의 장으로 만들고 국가 간, 민족 간, 내국인 간의 대중적 만남을 가능케 한다고 강조하면서 엑스포 참가 의사를 밝혔다. 이렇듯, 리스본은 보편적 주제를 통하여 엑스포 기간 동안 세계의 창이 되었던 것이다.<sup>6)</sup>

리스본엑스포는 ‘해양’을 여러 각도(교육, 문화, 과학, 환경, 경제, 예술)에서 다루면서, ‘경제, 과학기술, 문화 올림픽’이라는 종합적 성격을 띠었다. 부주제에서 알 수 있듯이,<sup>7)</sup> 과학적, 생태적, 예술적, 오락적 차원에서 바다의 풍부함과 다양성을 보여줌으로써 진정한 환경적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다음 도표는 5개 주제관과 가상현실관의 컨셉, 전시내용과 연출이 환경 메시지를 어떻게 전달하고 있는지를 요약하고 있다.<sup>8)</sup>

5) <http://www.unesco.org/bpi/fre/unescopresse/98-203f.htm>, <http://www.gddc.pt> 참조.

6) 아리스본엑스포는 Exposition Internationale(혹은 Mondiale)이지만 Exposition Universelle로 가끔씩 소개될 정도로 행사의 질적 수준에 있어 1992년 세비야엑스포보다 더 성공한 박람회로 기억된다. 리스본엑스포는 실제로 세비야엑스포보다 38개 국가가 더 많은 역대 최다수의 참가국 수(146개국)를 기록하였다. 물론, 이는 리스본엑스포가 타 국가관의 건설을 맡아 참가국과 국제기구에 무상 임대함으로써 가능한 한 많은 국가들이 참가할 수 있었던 데 그 이유가 있었다. BIE 협약에 정해진 25헥타르보다 더 넓은 70헥타르(당초 50헥타르)를 넘는 단지를 조성하고 최대 3개월이라는 규정을 넘어 4개월 반이라는 긴 행사기간 동안 1200만 여명이 방문한 성공적인 행사였다.

7) 부주제는 다음 4가지이다. ① 바다와 해양자원(해양생태계의 라이프사이클, 조류와 해안의 역동성, 대륙의 이동과 해저의 형성, 재생에너지 자원 등 소개), ② 바다와 지구의 생태학적 균형(바다와 기후의 변화, 극지방 빙하의 확산 이동, 자연 재해, 바다 보전 및 오염 문제, 해안의 통합적 관리 등), ③ 해양레저(일반관광 및 문화 관광, 해양 스포츠, 해양공원과 해저보호구역, 해저 고고학 등), ④ 예술적 영감의 원천으로서의 바다(바다의 이미지, 역사, 문학, 예술, 음악, 종교, 신화, 파도, 조류 등). 『1998 리스본 세계박람회 종합보고서』(1998 : 19-20).

8) 도표의 내용은 필자가 다음 자료의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임. <http://www.rdl.com.lb/1998/3651/dossier.htm>, GEO(1998 : 110), <http://www.expo2000.de>. 보다 상세한 내용은 최·정·하(2009) 참조.

전시관	컨셉	전시내용	주제 연출 및 공연의 특징
포르투갈관	인간과 바다의 관계 과거, 현재, 미래의 항해	3가지 항해 코스 (신화, 꿈, 현실/ 인도항로/미래의 발견자)	멀티미디어관
해양관	생명의 근원으로서의 바다	대서양, 남극, 인도양, 태평양의 250여종의 8000여마리의 희귀생물전시 인류와 자연환경간의 상호의존성, 하나의 해양 표현	세계 3위의 아쿠아리움
바다지식관	해양발전의 역사 (항해술의 습득 과정의 역사)	선박시스템, 과거 항해술 및 항해기계, 잠수의 역사, 첨단항해술, 지도제작법, 심해자원시추, 첨단 해양탐사 기구	5314㎡규모, 오락과 스펙터클 활용 4개 색션 (항해, 탐구, 잠수, 해양자원활용), 2개 하위색션 (마젤란, 도전자) 중세번선 전시
유토피아관	상상력, 예술적 영감으로서의 바다	바다의 신화와 전설 9개 장면(추락과 무/빅뱅/제신/ 바다의 탄생/신들의 전쟁/대정복/난파/아틀란티스/신세계) 창조신화를 토대로 한 인간의 기원, 신, 해양을 해석적으로 해석	1만여석의 계단극장 음향과 조명, 초현실주의적인 멀티 퍼포먼스공연 레이저 착시 효과 등 최첨단 기술 활용
미래관	과학기술로 보존해야 하는 바다	해양환경과 고발, 바다를 보존해야 하는 인류의 사명 (아틀라스/위기의 해양/해저산책/해양관측/미래전망)	2개의 영화관 구성, 멀티미디어 3D 영상 레이저 공연, 물구름과 바다냄새 연출
가상현실관	전설 속의 해저도시 오세아니아로의 여행	오세아니아의 잔해와 환상도시 방문	해저여행 시뮬레이션, 하루 40분간 4단계의 가상모험 여행 체험, 180도 스크린 영상

위 도표의 내용을 살펴보면, 주제의 접근은 대체로 거의 모든 주제관들이 상상의 시간과 역사의 시간이라는 여행 형식을 통하여 전달되고 있다. 학습자, 탐험가, 연구자, 혹은 꿈꾸는 사람의 시선으로 해양의 과거, 현재, 미래를 시간을 넘나드는 체험을 통하여 해양의 풍요로움과 다양성을 새삼 깨닫도록 하는 듯하다. 흥미로운 것은 환경 메시지의 전달이 첨단기술과 예술 그리고 스펙터클한 요소를 통해 실현되었다는 점이다. 해양 신화에 영감 받은 전시관, 항구에 정박한 범선 모양의 오서나리움, 대형스크린, 주제 안에서 상호 연결되어 있는 주제관들, 3D 영상의 멀티미디어 공연 등은 과학과 예술의 접목이 없었다면 호기심과 경탄을 자아내지 못했을 것이다.

예술적이고 스펙터클한 요소는 그 자체보다는 해양지식과 그 자원을 가치화하고 미래의 유산으로 남겨야 하는 중요성과 책임을 알리는 최상의 수단으로 도입되었다. 안토니우 메가 페레이라가 “첨단기술은 그것이 내용이 없다면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다”(GEO, 1998 : 112)라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주제의 보편성, 강한 메시지의 전달을 위한 콘테츠에 역점을 두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렇듯 리스본엑스포의 사례는 엑스포가 과학기술의 독창성과 참신성, 화려한 축제적 요소를 특징으로 하지만 이것만이 엑스포의 성공의 열쇠가 아니며, 그렇다고 강한 메시지의 교육적 전달에만 치우치는 것 또한 흥미와 경탄을 자아낼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 3.2 주제의 축제성 : 예술과 스펙터클

리스본엑스포는 천년의 마지막 엑스포라는 점에서 모든 공연 형태를 총망라한 과학종합대전 혹은 종합예술대회와 같았다. BIE 협약 제1조에서 ‘대중을 위한 교육적 목표’를 강조하였다면, 이 교육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오락과 스펙터클한 요소<sup>9)</sup>이다. 사실상 교육적 교훈적 목적에도 불구하고, 일반대중은 축제적 분위기, 불꽃축제, 화려한 공연, 놀이공원을 통해서 엑스포를 기억한다. 박람회로 번역되는 프랑스어 Foire(영어 Fair)의 라틴어 어원이 축제일 jour de fête이듯이, 기본적으로 놀이와 잔치를 벌이는 축제적 성격을 특징으로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리스본엑스포는 지적인 동시에 오락적이며, 탐미적이면서 일탈적이며 통일성이 없어 보이나 실험적인 바로크적 종합성이 돋보인다. 이러한 종합성은 하나의 주제, 해양으로 집중된다.

리스본엑스포에서는 현대무용, 춤과 연극, 멀티미디어 공연, 다민족 콘서트, 현대음악, 시각예술 등의 문화예술 활동이 ‘100일 축제’라는 야외공연 프로그램 안에서 매일 크고 작은 행사가 끊이지 않는다.<sup>10)</sup> 매일 십 여 개의 퍼포먼스가 올리바이스 부두 주변의 야외공간에서 이루어진다. 행사의 내용은 광범위하다. 매일 160여명의 배우들이 상상의 배를 타고 행렬을 하고 주야로 120여명의 무대예술전공 학생들이 중세 포르투갈의 상상의 바다괴물과 신화의 인물로 변장하여 거리공연을 펼친다. 거리에서 배우, 음악가, 곡예사들이 대중과 뒤섞여 경탄을 만들고 웃음을 자아내는 카니발적 축제를 즐긴다.

저녁에는 테주강을 배경으로 물, 불, 조명, 음향이 결합된 <아쿠아 매트릭스Acqua Matrix> 레이저쇼가 연출된다. 15세기 대항해를 떠난 배의 출항과 귀환, 바다에 대한 경의를 표시했던 역사 속의 축제적 장면을 떠올리게 한다.

또한 배는 리스본엑스포 전시관에서 혹은 공연장에서 해양의 주제를 돋보이게 하는 소재이다. 과거의 유물로 전시되기도 하고 수상대회와 수상공연에 이용되어 축제적 분위기를 만들어낸다. 1년 3개월 동안 리스본엑스포의 개최 홍보를 위한 요트대회 <Expo 98 Round the world Rally>, 수상경기 및 퍼레이드에

9) 19세기말 엑스포에서 즉흥적으로 나타난 스펙터클은 일반대중의 오락적 체험을 가능케 한다는 인식하에 보다 조직적인 성격을 띠게 되었다. 유희적 요소는 1,2차 세계대전 이후 스펙터클한 요소가 증가하면서 엑스포에 본격적으로 가미되었다. 오락과 유희가 직접적인 수익의 원천이 되었던 미국 시카고엑스포(1936)는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고, 이후 스펙터클은 하나의 경향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점점 오늘날 엑스포의 스펙터클적 요소는 이윤추구나 상업적 논리를 넘어 대중의 관람빈도를 극대화하고 보다 많은 대중들에게 엑스포의 메시지를 최대한 전달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이해되고 있다. 주입식 메시지 전달이 아니라 관람객의 모든 오감을 즐겁게 하는 오락적 요소와 상호작용적 체험이 교육적 효과를 배가한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Pinot de Villechenon(1992 :12, 14, 95) 참조.

10) <http://www.saveursdumonde.net> 참조.

참가하기 위해 항구로 모여 든 5대륙의 배들(요트선, 연구선, 실습선, 역사적 배, 잠수함, 수상 활주정, 신개념 선박 등)은 해양의 주제에 어울리는 위엄과 축제 분위기를 만들어낸다.

주야로 오락과 여가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주간활동구역(Expo jour)과 야간활동구역(Expo nuit)을 구분하는 컨셉으로 각각 물길과 해안길이 조성되었다. 물길은 낮 동안 중심 순환축으로서 주제관, 타국가관, 국제기구와 기업관과 연결된다. 물길에 위치한 <여가의 원천, 산에서 바다로>라는 주제의 '아쿠아 공원'은 자연의 물(빙하, 만, 호수, 하구)을 연출하는 물줄기를 따라 산책을 할 수 있는 휴식과 여가의 공간이다. 온종일 쉬지 않고 방문객의 더위를 식혀주는 물기구들(쭉쭉는 물뿌리개, 분수 등)은 물을 더욱 친근한 대상으로 만들어준다. 물길과 나란히 조성된 해안길은 밤부터 새벽 3시까지 음악, 연극, 춤, 서커스 등 각종 공연이 끊이지 않는 거리이다. 이 거리에 테주장변 2km 길을 따라 대부분의 위락시설과 서비스 시설이 모여 있다.<sup>11)</sup>

이와 같이 엑스포장의 전시관이든 야외공간이든 어디에서나 어느 시간 때에나 사람들은 여흥을 즐길 수 있고, 오락과 휴식이 함께 어우러져 물과 바다가 늘 가까이에 있는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리스본엑스포의 축제공간은 해양을 새롭게 인식시키고자 하는 교육의 장이며, 전시관의 연장선상에서 연출되는 해양주제의 공간이었다.

### 3.3 주제의 도시성 : 도시안의 도시

대부분의 엑스포는 국제사회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표와 동시에 국가적, 지역적 목표를 갖는다. 달리 표현하면 보편주의와 국가주의라는 두 가지 목표가 야누스의 얼굴처럼 함께 존재한다. 초기 엑스포들은 국가의 위상과 이미지 제고, 국가경쟁력에 몰두하여 지역의 입장과 이해를 대변하지 못했던 측면이 많았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는 개최도시의 이해를 반영하면서 개최도시는 경제적, 경제외적 효과 창출을 위하여 엑스포 유치에 적극 나서기 시작하였다. 더 정확히 말하면 이는 엑스포라는 대규모 국제행사를 유치하여 도시와 배후지역의 현안이 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기대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리스본엑스포는 해양이라는 인류 공동의 가치 추구 이면에 심지어 전면에 국가적 혹은 지역적 이해를 분명히 반영한 사례로 기억되고 있다. 일회성 국제행사인지 아니면 엑스포장을 포함하는 도시재개발 준비과정인지 모를 정도로 리

스본엑스포의 개발 규모는 대단하였다. 심지어 “엑스포는 본질적으로 도시를 재건설하려는 변명에 불과하다”, “두 가지를 시도하는 엑스포의 ‘제3의 경향’의 시작이다”(Richardson, 1998 : 27), “배후도시를 만들기 위해 국제이벤트를 이용하는 도시개발의 현행 경향에 속한다”라는 등의 평가를 받았다(Carrière et al., 2002).

리스본엑스포는 우선 국가적 차원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1926년에서부터 1974년까지 48년간 살라자르Salazar의 독재정치에 시달렸던 포르투갈 국민들의 현대화와 민주화의 열망은 그 어느 때보다도 뜨거웠다. 국민들은 국가의 자부심을 가지고 결집할 수 있는 기회를 엑스포에서 찾았다. 엑스포를 통하여 작고 가난한 나라, 관광지로서 매력이 없는 나라라는 이미지에서 탈피하고 수도 리스본을 재건하여 세계화의 흐름 속에 완벽하게 통합될 수 있는 현대적 국가임을 보여줌으로써 유럽연합의 당당한 회원국으로서 변모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앞선 많은 엑스포들과는 달리, 리스본엑스포는 단순히 기념비적인 이벤트가 되기보다 미래의 도시로 재생시킬 수 있는 도시재개발사업을 병행하는 것을 필요로 하였다.

지역적으로는 과거의 영광을 되살려 황폐화된 리스본의 동부지역을 재개발하여 이 지역을 도시 안으로 통합하는 계기를 만들고, 동시에 도시의 교통 및 인프라를 정비하여 도심의 접근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리스본은 도시 진입, 이동성, 지역간의 연결, 주차장의 절대부족, 대중교통수단의 연결부족 등 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도시였고, 도시 안에서도 중부와 서부지역에 비해 동부지역의 낙후된 환경으로 인한 구조적 불균형 문제가 심각한 상태였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이 절실했다. 결국 엑스포 부지는 동부의 올리바이스 부두 주변으로 결정되었다. 이 곳은 도살장, 격납고, 정류장, 쓰레기하치장들이 방치되어 있었고, 더욱이 올리바이스와 그 배후지인 솔라스Chelas에는 지역의 공업 및 항만경제가 쇠퇴하면서 빈민층들이 사는 사회주택단지가 자리 잡고 있었다(Carrière et al., 2002 : 76). 빈민층의 탈거와 토지정비가 필요한 상황이었다.<sup>12)</sup>

리스본엑스포 조직위는 구상 초기단계에서부터 행사장의 일시성을 뛰어넘어 엑스포 건물의 사후활용계획<sup>13)</sup>과 단지를 포함한 330 헥타르에 달하는 10년 장기개발계획을 수립하였다. 1980년대 이후 유행하던 기업주의 도시개발Urban Entrepreneurialism 유형을 도입하여 민간 기업이 도시개발을 맡는 공공-민간 합자개발방식을 채택하였다.<sup>14)</sup> 이 사업은 1995년에 Parque Expo

11) Luiz da Costa Dias(1998 : 35), <http://www.saveursdumonde.net> 참조.

12) GEO(1998 : 114, 118), Carrière et al.(2002 : 76).

13) 리스본엑스포의 조직위는 전체 건물 중 70%를 영구건물로 건설하여 엑스포 종료 후에도 도시에 유용하게 쓰이도록 구상 초기단계부터 건물의 사후 용도를 결정하였다. 영구건물로 건축된 것은 미래관을 제외한 4개의 주제관(포르투갈관, 해양관, 바다지식관, 유토피아관)과 북관(유럽국가관 및 아시아국가관), 임시건물은 남관(중남미, 북미, 아프리카국가관)과 기타 기업관, 국제기구관, 국내관 등이다. 그리고 포르투갈관은 각료회의 관저, 유토피아관은 다목적 공연장, 바다지식관은 과학기술박물관, 국제지역북관은 국제박람회장, 해양관은 오서나리움으로 용도 변경을 고려하여 설계되었다. <http://www.bie-paris.org> 참조.

14) 유럽에서 1950년대와 1960년대 공공정책분야의 도시개발계획은 주로 공공기관이 맡아 해왔으나 1970년대 중반 경기가 침체되면서, 복지국가의 위기, 국가재정 부족, 도시개발사업의 부적절성과 비효율성에 대한 반성이 일어났다. 1980년대와 1990년대 들어와서는 민간기업이 도시개발사업을 맡는 ‘기업주의 도시전략’이 발달하였다. 리스본 도시개발사업은 바르셀로나, 제노바, 나폴리, 마르세유의 재개발처럼 황폐한 도심지역을 비즈니스지구 건설, 관광활동과 주택으로 전환하는 공공-민간 합자사업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러한 개발방식은 주로 방치된 부지를 재개발하여 새로운 경제활동을 창출하고 도시의 주류로 편입시키기 위한 것이다(Carrière et al., 2002: 69).

98 회사가 위임받아 엑스포단지 조성과 동시에 향후 복합기능의 신도시 조성을 위한 '2010 장기개발사업'의 관리와 운영을 맡게 되었다. Parque Expo 98 회사는 당대 최대 규모의 환경보호와 도시개발의 공간이 되도록 만들고자 하였으며, 박람회 구역의 재조성을 위하여 고급화되고 혁신적인 디자인을 도입하였다<sup>15)</sup>.

엑스포장은 폐장된 후 2주가 지나서 10월 16일에 국제공원이란 이름으로 재탄생하였다. '국제공원'은 '환경 및 도시개발', '유일한 다목적 중심구조 창출', '새로운 중심성 창출'을 컨셉으로 하는 3개 지구, 즉 유명 건축가들이 디자인한 세계적 수준의 10여개의 빌딩이 들어선 주요 편의시설지구, 서비스 및 상업지구, 주거지구로 조성되었다. 이곳은 지역서비스 시설(쇼핑, 레저·여가, 학교, 스포츠센터, 마리나, 식당, 병원), 유명 국내기업, 다국적 기업들, 수많은 공공기관들,<sup>16)</sup> 11 헥타르에 달하는 녹지공간으로 구성되어 완전한 생활권을 갖추고 있다. 국제공원은 외지사람들이 선호하는 여가활동의 공간이기도 하다. 매달 거의 백만 명에 이르는 외지 사람들이 수변공원, 타지드 산책로, 파도공원, 포르투갈 부두, 다양한 다른 관광지와 레저 장소로 산책하러 이곳을 방문하고 있다.

국제공원의 도시개발은 2010년경에 완료될 예정이다. 2010년까지 10,000여개의 주거지와 25,000명의 거주민, 1,800개 일자리 제공이 예상된다(GEO, 1998 : 116). 또한 17킬로미터 길이의 유럽 최장의 바스코 다가마대교가 도시의 남부와 북부의 교통을 이어주면서 두 지역의 생활권이 통합되었고, 고속도로, 지하철, 지방철도, 버스, 공항을 한 데 모은 다기능 교통역인 오리엔테역은 2015년까지 마드리드-포르투갈 고속철 역으로 확충될 것이다.

국제공원은 'Expo Urbe' 혹은 'Ideal City'(Richardson, 1998 : 25)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현대적 이미지를 갖고 포르투갈과 리스본의 이미지와 상징이 되었다. 그러나 사회통합이라는 측면에서 여전히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도시 내 구조적 불균형을 해소하고 사회적 통합을 이루겠다는 당초의 계획은 개발과정에서 지역주민과의 논의 없이 사업이 진행되면서 결국 부유층을 위한 '섬'을 만들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Parque Expo 98 회사가 매각한 부지를 주택개발업자들이 주로 고급 소유지로 개발하였고, 주택 규모도 원래 계획되었던 115㎡가 아니라 165㎡로 커졌다(GEO, 1998 : 118). 이로 인해 부동산 가격은 오르고 지역의 원래 주민들은 외곽으로 이주하였고 사회계층간의 갈등과 빈부격차는 심화되었다. 10년 장기개발계획 사업의 마무리 단계에서 국제공원은 모든 계층이 함께 어울리는 진정한 의미의 도시가 아닌, '도시안의 도시'가 되었고, 리스본에게 해결해야 하는 또 다른 사회문제를 남겨주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 4. 여수엑스포를 위한 제언

### 4.1 주제의 지속가능한 구현과 실현

리스본엑스포를 전환점으로 하여 21세기 엑스포들은 주제적 측면에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다. 주제적 중요성에서 보면, 2012 여수엑스포는 '바다와 연안'에 관한 과학과 기술의 진보와 신기술의 소개를 위한 단순한 세계적 만남의 역할이 아니라 '바다와 연안'에 대한 과학과 사상을 토론하는 장이 되어 현안의 문제를 다루고, 문제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과 지속가능한 활동을 가능케 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여수엑스포의 주제는 <살아 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이며 이 주제는 주제관과 한국관, 기후환경, 해양생물, 해양산업기술, 해양도시, 해양문화, 해양예술 분야의 6개 부제관을 통해 주제 통일성의 연출과 디자인을 계획하고 있다(2012 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 2009 : 61). 그런데 꼼꼼하게 들여다보면, 리스본엑스포와 차별되는 내용은 기후변화를 다룬 기후환경관에 불과하다.

여기에 대해 기 소르망은 여수엑스포가 바다와 연안과 관련한 과학의 새 경계를 넘어서는 것이 될지 그저 환경론의 유행에 가담하는 것이 될지 불투명하다고 지적한다. 그는 대재앙형의 생태학적 수사에서 여수엑스포를 구해내 한국인의 지성을 보여주는 계기가 될 때만이 여수엑스포가 기존 엑스포와 차별화되고 또 성공적인 개최가 될 것이라고 비판한다(동아일보, 2009.08.25). 이러한 지적에 대해 여수엑스포 조직위원회의 김병일 사무총장은, 여수엑스포는 환경에 대한 경각심을 강조하는 것도 있지만 해양에 정보기술, 바이오기술, 에너지환경기술 등 창조적 과학과 기술이 융합된 전혀 새로운 녹색의 바다경제, '블루 이코노미'라는 제4의 물결 창조의 계기가 될 것이라 강조한다(동아일보, 2009.09.04).

실제 여수엑스포 조직위에서 발간한 최근의 각종 안내책자는 바다의 현명한 이용과 보존으로 인류발전에 기여하는 녹색생장의 비전과 신해양 녹색경제 창조로 새로운 도약의 기반을 마련하는 성장동력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기후변화를 포함한 바다와 연안을 다룬 여수엑스포 주제는 현재 온 인류의 관심사란 점에서 손색이 없어 보인다. 더욱이 기 소르망의 우려와는 달리 신해양 녹색경제 창조라는 신기술의 전망을 포함하고 있어, 해양과 그 자원의 보존에 초점을 둔 리스본엑스포와도 어느 정도 차별화된다.

무엇보다도 리스본엑스포와 차별되는 것은 '여수프로젝트'이다. 여수프로젝트는 개도국의 해양과 환경 연구와 개선을 위해 한국 정부가 100억 원을 지원하는 프로젝트이다. 2009년부터 2012년까지 100억 원을 개도국에 시범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시범사업의 결과를 토대로 2013년부터 본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2012년 여수엑스포 기간 중에 제안될 교토의정서 이상의 강력한 내용을 담은 여수선언과 더불어 여수프로젝트가 전 지

15) <http://www.parquexpo.pt> 참조.

16) 유럽해상안전지부, 국립무용극단(카모에 극장), 리스본건강관리기술대학, IBM, 외국계항공사, Parque Expo 98 회사, 기상 및 생태학 전시관, 리스본 기술공과대학, 광고회사 등. 최·정·하(2009 : 130).

구적 환경과 해양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를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여수프로젝트는 엑스포 기간이 끝난 뒤에도 개도국에 대한 바다와 연안에 관련된 과학기술과 연구 성과의 이전·공유로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 4.2 도시개발 방향 : 아시아 해항도시 네트워크

인구 30만 명도 채 안되는 중소도시 여수가 엑스포를 계기로 21세기 신해양 녹색경제의 수도, 국제관광레저의 중심도시, 남해안 선벨트의 거점이 되겠다는 도시개발계획과 세계 5위의 해양강국으로 진입하겠다는 목표는 리스본엑스포와 차별이 없어 보인다. 리스본은 포르투갈의 수도이고 해양을 통해 근대세계를 개척했던 출발지였으며 리스본의 번영을 바탕으로 포르투갈은 근대 초 열강의 대열에 들어섰다. 여수가 리스본과는 여러 면에서 다르다는 것은 자명하다. 그렇다면 여수엑스포 이후 도시개발은 리스본의 경우와 어떻게 차별화되어야 하는가?

여수는 엑스포를 감내할 만한 도시기반이 없기 때문에 엑스포장과 직접 지원 시설에만 2조 원 정도의 순 투자가 불가피하다. 엑스포 이후 활용할 지역수요는 거의 전무하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여수의 도시개발은 부산-전남-경남의 35개 시·군으로 구성되는 남해안지역의 형성과 연동시켜 고려되어야 한다. 바다가 경계와 단절의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남해안을 아우르는 남해안의 지역 형성은 바다가 소통과 공생의 공간이라는 상징성을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남해안 지역을 염두에 둔 도시개발 자체가 동서회합과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한다. 현재 진행 중인 『남해안권 발전 종합계획(안)』은 남해안 지역을 ‘동북아 글로벌 복합경제중심지’로 만들기 위해, ‘제2수도권 형성’ ‘2시간대 통합경제권 달성’ ‘동북아 5위경제권 진입’의 발전 목표와 이를 위한 구체적인 추진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여수엑스포 이후의 도시개발은 우리의 고질적인 현안인 중앙 집권 집중과 수도권 중심의 일극체제에 대한 반성을 전제한 지방자치와 분권 그리고 국가균형발전의 맥락에서 전개될 남해안 지역의 형성과 보조를 맞추어야 한다. 이는 여수엑스포에 대한 여수시민들의 애정과 관심에 비해 상대적으로 무관심한 타 도시의 시민들, 특히 남해안 지역 시민들의 동참을 유발할 수 있을 것이다.

기후변화와 환경문제뿐만 아니라 국민국가의 경계와 분단적인 국민의식의 장벽을 넘어, 완만한 공공의 공간을 구축해 나가는데 필요한 조건과 그 과정을 밝혀내는 일 또한 인류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이론적·실천적 과제이다. 특히 근대의 바다는 국민국가에 포섭되어 어떠한 자연경계보다도 견고한 국경으로 작동하여 왔다. 그러나 사정이 급변하고 있다. 냉전 붕괴 이후 탄력을 받고 있는 글로벌라이제이션은 국가보다는 지자체 특히 도시가 주연을 맡아 일국 내 도시간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국경을 초월한 도시간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200여개의 유럽의 신한자 도시들로 구성된 네트워크(신한자)나 발트해 지역의 형성은 발트해를 접하고 있는 해항도시(sea port city)가 주도하는 새로운 지역 형성의 대표적 사례이다(정,

2009).

유럽과는 달리 동아시아에서는 한·중·일의 경계와 분단적인 국민의식이 아직도 강하다. 일제는 부산을 대륙침략의 교두보로 활용하였고, 유럽 열강은 거문도와 광양을 아시아 대륙으로 침략하는 관문점으로 인식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남해안 지역은 여수엑스포를 계기로 바다를 통한 남해안 지역의 해항도시간 네트워크 추진을 넘어 아시아 해항도시 네트워크로 나아가야 하며 아시아의 새 역사를 창조하는 근거지가 될 수 있다. 이를 위해 여수엑스포의 주제에도 바다를 매개한 동서회합과 국경(바다)을 넘는 공생의 새로운 질서를 전망하는 비전이 포함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여수엑스포는 바다·연안과 관련된 물리적인 신기술과 공존뿐만 아니라 바다와 관련된 신사상을 토론하고, 현안을 다루며 문제해결을 위한 실천과 지속가능한 활동의 전망을 포함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중국의 고대 사상가인 노자는 최고의 선은 물이라 했다(上善若水). 왜냐하면 “물은 선하여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도 다투지 않는다.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곳에 처하므로 도에 가깝기” 때문이다. 그런데 가장 낮으면서 가장 큰물은 바다이다. 모든 물은 바다로 귀속되기 때문이다. 우리말의 바다는 모든 물을 다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름이 바다이다. 여수엑스포는 해항도시네트워크가 바다가 최고의 선이다(上善若海)는 원리에 충실해야 한다는 비전도 제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바다가 주는 함의는 도시와 도시 사이의 관계가 어떠한지 하는가를 제시한다. 여수엑스포 이후 지방도시의 재개발은 일국의 수도와 같은 거대도시 형성이 아니라 지방의 역사와 문화를 보전하면서 다양한 결절점을 개발하고 이 결절점들이 네트워크를 이루어 남해안 지역을 형성하고 나아가 아시아의 도시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방향으로의 지속가능한 전망을 갖고 진행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여수나 부산 등 남해안의 해항도시에 아시아 해항도시네트워크 사무국을 설치하고 지속가능한 실천 방안을 토론하고 제안하며 실현하는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 여수프로젝트나 여수선언 못지않게 중요해 보인다.

여수엑스포가 바다와 연안의 보전과 중요성, 신기술의 전망과 이를 위한 국제적 공조의 역할 이외에 바다는 최고의 선이라는 신사상을 알리고 이에 근거한 새로운 지역의 형성을 창조하는 발신지가 되기를 기대한다. 자연(해양)·인간·도시와의 유기적·관계론적 전망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회와 사회, 도시와 도시 간의 유기적·관계론적 전망이 바다와 연안을 주제로 하는 여수엑스포에 주제에 통일성을 이룰 때 가능할 것이다.

여수는 이미 유명한 도시가 아니라 성장 가능성이 높은 도시이다. 여수엑스포 이후의 도시개발이 리스본과는 다르게 계획되고 다른 실험을 해야 하며 다른 차원의 모델을 제시해야 한다.

## 5. 결 론

초기 엑스포가 경제, 과학기술을 강조했다면 21세기 엑스포



는 주제의 역할, 더 넓게는 문화적 역할을 강조한다. 이러한 새로운 경향에 있어 리스본엑스포의 시대적 의의는 이미 1998년에 한 세기를 총망라하고 미래 인류의 현안이 될 환경주제를 예견하였다는 데 있다. 리스본엑스포의 환경주제는 이후 2000년 하노버와 2005년 아이치에서 자연, 2008년 사라고사에서 물, 2010년 상하이에서 도시, 다시 2012년 여수에서 <바다와 연안>이라는 주제로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인간과 자연, 그리고 기술이라는 세 가지 요소의 조화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지속될 것이다.

엑스포는 과학기술의 성과·발전의 어제와 미래를 보여주는 세계적 만남을 넘어서서 이 발전의 방향 즉 주제라는 내용을 강조한다. 즉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과학기술에 주제성이 필히 동반되어야 하며 이 주제성은 바로 오늘 전 세계인들의 공동 관심사이자 현안이며, 해결책이 모색되어야 하는 그 무엇이다. 다른 각도에서 말하면, 오래전 과학과 예술의 접목이 이루어졌듯이, 과학은 엑스포의 주제를 구현하고 실천적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주요한 수단이 되었다. 대중의 교육을 위한 방법론은 첨단기술을 이용한 오락과 스펙터클, 축제 속에서 더욱 효과를 발휘한다. 대중이 무엇을 보고 무엇을 기억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은 과학기술과 주제의 조화로운 적용 속에서 그 답이 찾아질 것이다.

여수엑스포가 바다와 연안과 관련한 과학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지 아니면 그저 환경론의 유행에 일조할지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여기에 대해 필자들은 여수엑스포조직위가 바다의 현명한 이용과 보전으로 인류발전에 기여하는 녹색성장의 비전과 신해양 녹색경제 창조로 새로운 도약의 기반을 마련하는 성장동력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해양과 그 자원의 보전에 초점을 둔 리스본엑스포와는 어느 정도 차별화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차별화되는 것은 개도국의 해양과 환경 연구 개선을 위해 한국 정부가 지원하는 여수프로젝트이다. 여수프로젝트에 대한 홍보는 상대적으로 미약하기 때문에 여수엑스포조직위는 새로운 녹색의 바다경제의 비전과 더불어 이를 개도국과 공유하려는 프로그램이 수반될 때 지속가능한 주제 구현이 가능하다는 것을 좀더 집약적으로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친환경,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주제와 함께 시작하는 21세기엑스포들은 도시개발 또한 이러한 주제를 상기시킬 수 있는 계획을 요구할 것이다. 리스본의 도시재개발은 당시의 전형적인 도시개발 사례의 유형을 따랐고 명암의 양면을 가진다. 여수의 도시재개발은 남해안 지역의 형성과 연계하여 지방의 문화와 역사를 보전하면서 다양한 결절점 역할을 하는 도시들의 네트워크를 지향해야 한다. 이것은 리스본엑스포가 간과해왔던 점이고 그로 인한 사회문제는 리스본이 향후의 과제로 떠안고 있기 때문이다.

남해안 도시개발은 더 나아가 동아시아 해항도시의 네트워크를 지향하는 지속가능한 개발과 전망 속에서 계획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엑스포는 첨단 기술과 신사상의 경연이며, 환경이나 기후변화만큼 국민국가의 경계와 분단적인 국민의식을 허무는

새로운 지역단위를 모색하는 전 지구적인 관심이 집결되는 곳이기 때문이다. 여수의 도시재개발은 바다를 매개로 한 남해안 지역의 형성과 동아시아 해항도시네트워크와 연계될 때 새로운 차원의 모델이 될 것이다.

## 후 기

이 논문은 2008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F-2008-361-B00001)

## 참 고 문 헌

- [1] 기 소르망(2009), “여수엑스포 새 비전 제시를” 『동아일보』 8월 25일자.
- [2] 김병일(2009), “여수의 꿈은 기 소르망의 상상력보다 크다” 『동아일보』 9월 4일자.
- [3]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편(1998), “1998 리스본 세계박람회 종합보고서”, pp.19-20.
- [4] 박진빈(2008), “서구박람회의 역사”, 『세계박람회와 지역문화』, 전남대학교 여수엑스포지원특성화사업단, pp.119-142.
- [5] 송종숙(1990), “세계박람회의 의의와 연혁”, 『대한건축학회지』 34권 6호 통권 157호, pp.8-13.
- [6] 송지훈, 심우갑(2005), “지속가능한 개발’ 개념 도입에 따른 국제 박람회 단지계획과 건축의 변화”, 『대한건축학회 창립60주년기념 학술발표대회논문집』, pp.417-420.
- [7] 2012 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2009), “2012 여수세계박람회 종합기본계획”.
- [8] 정문수(2009), “신해양시대의 남해안, 해항도시네트워크의 발신지”, 『남해안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 자료집』
- [9] 최은순, 정문수, 하세봉(2009), 『해항도시의 세계박람회』, 전망.
- [10] Bureau International des Exposition(2009)  
<http://www.bie-paris.org>
- [11] Carrière, J.-P. & Demazière, Ch.(2002), “Urban Planning and Flagship development Projects : Lessons from Expo 98, Lisbon”, *Practice Forum*, vol 17, n<sup>o</sup> 1, pp. 69-79.
- [12] Chez.com(2009)  
<http://www.chez.com>
- [13] De Groot, P.(2005), “A Multidisciplinary Analysis of World Fairs(=Expos) and their Effects”, *Tourism Review*, 60 (3), pp.20-28.
- [14] “Expo ‘98 in Lisbon”, *L’ARCA*, pp.62-67.
- [15] Infos Mondiales(2009)  
<http://www.thaiwave.com/bonjoursiam/infosjuin.htm>.
- [16] “Lisbonne”(1998), GEO (Ed. française), n<sup>o</sup> 231, pp.101-118.
- [17] Expo2000 Hanover(2009)  
<http://www.expo2000.de>

- [18] La revue du Liban(2009)  
<http://www.rdl.com.lb/1998/3657/dossier.htm>
- [19] Luiz da Costa Dias, A.(1998), “Expo 98, La planète a rendez-vous à Lisbonne” *Readers Digest* (Ed. française), n<sup>o</sup> 70, pp.29-35.
- [20] Prarqu expo 98(2009)  
<http://www.parquexpo.pt>
- [21] Pinot de Villechenon, F.(1992), *Expositions universelles, Que sais-je?*, Paris, PUF.
- [22] Poulain, D.(2007), “L’exposition internationale de Saragosse 2008 : Eau et développement durable”, *Mission économique*, Ambassadeur de France en Espagne.
- [23] Richardson, V.(1998), “The build-up”, *RIBA journal*.
- [24] Saveurs du Monde(2009)  
<http://www.saveursdumonde.net/articles>
- [25] UNESCO(2009)  
<http://www.unesco.org/bpi/fre/unescopresse/98-2038.htm>

---

원고접수일 : 2009년 9월 7일  
심사완료일 : 2009년 10월 26일  
원고채택일 : 2009년 10월 27일